

기술과 품질로 승부한다

◇ 취재 / 김동진 기자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에 위치한 (주)하나코리아는 그 동안 1년여의 휴대용 연막소독기 기술개발과 연구 노력 끝에 2000년 5월부터 새로운 개념의 첨단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출시하게 되어 벤처기업 추진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의 출발과 그 동안 휴대용 연막소독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주)하나코리아가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제품의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휴대용 연막소독기 업계는 낙후된 기술력과 기업의 영세성 한탕주의의 경영방식이 빚어낸 혼탁한 시장이었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21세기를 맞이하여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가 선택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마이 살

아남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주)하나코리아의 전영수 상무이사는 힘주어 강조하면서 자신감과 의욕을 나타냈다.

기화기 온도제어 시스템 적용, 이중분사기능 적용, 자동분사 시스템 적용, 액화 부탄가스 안전장치 시스템 적용, 시대에 맞는 GOOD 디자인 적용 등 첨단기능을 갖춘 통통이 연막소독기는 전체 무게가 3.2kg에 불과해 누구나 손쉽게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짧은 시간내에 넓은 면적에 분사할 수 있다. 특히 자동분사 시스템을 적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자동분사 조절 손잡이를 들고만 다니면서 자동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발되었다.

기존 제품들은 손으로 계속 작동하여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특히 기화기 온도 제어 시스템이 없어 기화기에 열을 가했을 때 70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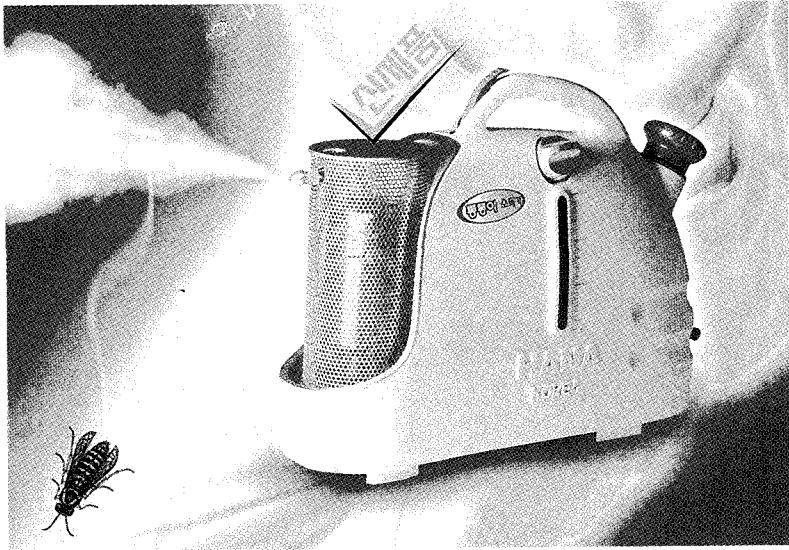
~ 800°C의 과열 상태에 이르러 약액이 타면서 카본을 발생, 기화기 및 노즐이 막히는 현상과 약액이 적정 분사 온도인 300°C ~ 350°C선을 유지하지 못해 약제효과가 파괴된 상태의 연막상을 보였다.

또한 (주)하나코리아는 업계 최초 통통이 Q-마크를 획득하였으며 국방부,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기술특허, 의장특허, 상표특허출원 한 상태이고 업계 최초로 벤처기업에 등록할 예정에 있다.

통통이 연막소독기는 약액이 적정량을 주입시키는 1차 분사노즐과 이중 분사기능을 적용하였고 제품의 가장 중요한 기화기의 적정 온도유지 제어 시스템을 적용 과열로 인한 카본 발생을 억제 하였으며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기존의 액화 부탄가스 장착 방법을 한국기스안전공사에서 검증된 가스 안정기를 몸체에 적용하였다.

또한 (주)하나코리아의 전영수 상무이사는 “한국 산업 디자인 개발원에서 개최하는 GOOD-DESIGN 전시회와 국제디자인 전시회에 출품하여 통통이 휴대용 연막소독기 제품의 디자인에 우수성을 평가 받겠다”며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구제역으로 전국이 방역비상에 걸려 축산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도 뉴캐슬병, 가금티푸스, 파리에 의해 전염되는 살모넬라병에 정부 관공서 주도의 공



△ 전체 무게가 3.2kg으로 누구나 손쉽게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공방역에 의존하는데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체계적인 자율방역을 정착시켜 평상시 수시 방역을 통해 전염병예방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며 전영수 상무이사는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연막소독기가 양계농가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하나코리아는 개발 단계부터 정부 연구기관에 의뢰 공동 연구개발 하였으며 제품 디자인을 대통령상 수상업체인 (주)다담 디자인에 의뢰, 개발하였다. 부품생산은 100% 아웃소싱으로 30여개사와 협력업체를 맺어 부품조달을 안정화하였으며 선진 생산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주)하나코리아가 5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통통이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공인 한국 생활용품 시험 연구원으로부터 Q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세계수출시장을 힘차게 두드리고 있다. ■ 양계